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3년 1월 제 **125**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홍근표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새해 인사말씀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주님 강복을 기도합니다”

공익법인에 걸맞는 역량 강화 위해 노력



요셉의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셉의원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요셉의원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용 가족들과 직원, 후원자와 봉사자 여러분께 예수님 탄생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빌며, 2023년 새해에 주님의 강복이 요셉의원 가족 여러분께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1987년 고 선우경식 선생님께서 요셉의원을 시작하실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요셉의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요셉의원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 환경도 초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달라졌습니다. 요셉의원에 대한 후원자와 봉사자의 기대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요셉의원이 그동안 속해있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울타리를 떠나, 2022년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공익법인으로 승인받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셉의원 모든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여름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암과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었으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신촌의 원룸주택에서 생활고를 겪던 두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건강보험료를 14개월 동



안 연체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가 73만 3천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6월 통계). 그만큼 우리 주변에 위기가정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 요셉의원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셉의원이 2023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일은 **첫째**, 요셉의원 역량 강화입니다. 공익법인으로 거듭난 만큼 그에 걸맞은 제도적, 인적 여건을 재정비하여, 요셉의원에 오시는 모든 분이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자서는 요셉의원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2022년의 활동을 새해에도 계속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유관기관 및 교구 사회사목 부서와의 공조와 연대도 강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의 요셉의원이 위치한 영등포 지역의 재개발 진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요셉의원 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3년은 필리핀 요셉의원 개원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고 선우경식 선생님의 유지가 담긴 국성회 활동도 중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필리핀 요셉의원과 국성회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후원과 성원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강복을 기도합니다. +

유 경 춘

요셉나눔재단법인 이사장

125호
주요
소식



2

선우경식 선생 '기림 미사'



4

정순택 대주교 강론



6

요셉의원 소식



14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7

국성회 소식



“성직자·수도자보다 더 영적인 삶을 사신 분”

선우경식 선생 ‘기림 미사’, 정순택 대주교 집전으로 봉헌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는 이번 기림미사에서 "선우 경식 원장님이 뿌린 씨앗이 나눔과 봉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사진은 미사 강복 장면.

본원 초대 원장인 선우경식(요셉, 1945-2008) 선생을 기리는 ‘기림 미사’가 11월 12일(토) 오전 10시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됐다. 이날 미사에는 유경춘 주교와 구요비 주교, 요셉나눔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이문주 요셉의원 2대 원장신부 등 사제단 30여 명을 비롯해, 신완식 요셉의원 원장과 고인의 가족, 의료봉사자와 후원자, 일반봉사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선우 원장이) 의사로서의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가난한 환자를 하느님에게서 보내주신 선물로 알고 평생을 그분들 위한 봉사의 삶을 사셨다”고 치하하고, “홀로 독신으로 지내며, 성직자보다도, 수도자보다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영적인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 대주교는 이어 “2022년에는 시대의 요청에 더욱 체계적으로 잘 응답하기 위해 ‘요셉나눔재단법인’이 발족해 ‘꼭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집’이 되

기 위해 선우경식 선생이 떠나간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진 선우 경식 원장님의 삶의 씨앗이 이제 우리들의 나눔과 봉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4쪽에 강론 전문)

선우 선생의 실천적 영성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

이번 미사는 ‘기억하다 -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기림 미사로, 서울대교구는 한국 근현대사의 신앙 선조를 기리고 그 모범을 따르자는 뜻에서 이 일련의 미사를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 첫 번째 미사로 안중근(토마스) 의사의 기림 미사를 지난 3월 26일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한 바 있다.

이번 기림 미사는 서울대교구가 공식적으로 선우 경식 선생의 공덕을 인정하고 교우들의 모범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신



이번 기림 미사는 서울대교구가 공식적으로 선우 선생의 공덕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는 “선우경식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기림 미사를 서울대교구장님이 안중근 의사 기림 미사에 이어 직접 두 번째 순서로 집전하신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선우 선생의 삶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이어 “선우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보편적 형제애를 더욱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고, 그 분의 실천적 영성을 널리 현양하

아가실 때까지 수도자나 성직자처럼 봉헌된 삶을 사셨으니 이제라도 그 삶을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같아 참으로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감회를 밝혔다.

선우 선생의 서울고 가톨릭 동문 모임(서가회)에서는 선우 선생의 헌신적 삶을 소개한 팸플릿 550부를 준비해 이번 미사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선우 선생과 서울고 동기(15회)로 서가회 2대 회장을 맡았던 김부영 씨(78)는 “미사를 집전하신 정순택 대주교님이 평신도인 선우 선생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신데다 깊



이번 미사에는 사제단 30여 명을 포함해 봉사자와 후원자 등 7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성향을 이뤘다. 사진 오른쪽은 정순택 대주교가 성체를 나누는 모습.

는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 집전에 참여한 이문주 본원 2대 원장신부는 “이번 미사 전에도 선우 선생님 같은 분이 성인품에 올라야 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여러 차례 들었다”며, “전에 서울 서부지역 교구장 대리로 계시던 조규만 주교님도 요셉의원 미사 강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전했다.

“제2, 제3의 선우 경식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선우 선생 생전에 함께 봉사에 참여하거나 학창 시절부터 친교를 나눴던 고교 동창들도 이번 미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선우 선생 선종 전 뇌질환 주치 의이자 현재도 본원 봉사로 활동해 오고 있는 고영초 건국대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선우 선생님이 정순택 대주교님의 두 번째 기림 미사 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선우 원장님뿐 아니라 요셉의원 직원·봉사자·후원자들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요 자랑”이라며, “돌

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감동했다”고 말하고, “선우 선생 장례미사 때 미사를 집전하셨던 주교님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난다면 평신도 쪽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새삼 생각난다”고 회상했다.

김부영 씨는 이번 기림 미사를 계기로 선우 선생의 뜻을 따르는 많은 봉사자, 후원자와 교우 및 동창들이 힘을 합쳐 선우 선생의 뜻을 널리 알림으로써,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제2, 제3의 선우 경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미사에는 서울고 가톨릭 모임 동창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모임에서는 선우 선생의 약력과 활동, 추모 글을 담은 팸플릿(오른쪽) 550권을 가져와 배부했다.



정순택 대주교 '선우 경식 기림 미사' 강론

“선우 선생이 뿌린 씨앗, 우리의 나눔과 봉사로 결실 맺을 것”



지난 3월(26일)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근현대사 신앙의 선조들을 기리는 기림미사의 첫 번째 인물로 안중근(토마스) 의사를 기리는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근현대사 신앙의 선조 기림미사 두 번째 분으로 오늘 저희는 선우경식(요셉) 원장 선생님을 기리는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

오늘 미사 독서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스에게 보낸 편지를 들었습니다(3 요한 1,5~8). 사도 요한은 가이오스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선교사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행위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그 사람들을 돌보아줌으로써 진리의 협력자가 되었음을 칭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행위, 그리고 그 길에 대한 협력자가 되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두고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행위, 그리고 그 길에 대한 협력자로서 충실히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에 삶을 바치신 선우경식(요셉, 1945~2008) 원장이십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는 요셉의원의 설립 이념- 곧 가난하고 버림받은 분들을 돌보는 무료 자선 병원을 설립하시고 그 뜻을 평생 사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신 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의술을 펼친 슈바이처 박사에 비견하여, ‘영등포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가톨릭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거쳐, 방지거병원 내과 과장으로서 일반적인 의사로서의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선우경식 선생님은 가난한 환자를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알고 평생을 그분들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대 재학 시절에 이미 신림동에서 주말 진료 봉사활동을 했던 선우경식 선생님은, “전문의가 없으니 일주일 한 번만 와서 도와 달라”는 의대 후배들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하여, 신림동 <사랑의 집> 주말 진료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 향로를 새롭게 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모하다고 여기던, 석 달밖에 유지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던 ‘무료 자선병원’인 ‘요셉의원’이 1987년 8월 29일 토요일에 당시 가장 어려웠던 동네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재개발로 인해 영등포의 현 위치로 이전하여 35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7개 진료 과목의 의료 봉사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자들의 먹거리와 생필품까지도 그분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곳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우경식 선생님의 오롯한 헌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다급할 때면 동창이나 친구들에게 창피함



을 무릅쓰고 손을 벌렸고, 급한 환자의 수술을 위해서는 큰 병원을 찾아가 간절히 애원까지도 해서 가난한 환자가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환자들의 진료뿐만 아니라 술주정을 비롯한 그들의 개인사까지도 들어주며 그들의 친구요 동반자 역할까지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홀로 독신으로 지내며, 성직자보다도, 수도자보다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은 그 부친이 돌아가신 뒤, 홀어머니를 모시고 1960년에 지어진 길음동의 낡은 주택에서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때로는 누나와 동생들에게 신세를 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남이 타다가 기증해 준 중고 승용차를 타다가, 그것도 휘발유값이 많이 나온다면 주로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하나도 아끼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선우경식 원장님은 넉넉지 못한 삶을, 아니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삶을 충실히 걸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풍요롭게 사는지도 모르죠. 내가 맘먹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으니까.”라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불사른 분이셨습니다.

2008년 4월 18일, 63세로 위암 투병을 하시다 선종하신 선우경식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20년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요셉의원을 거쳐 간 환자들에게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하는 아쉬움을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20년을 잘 견뎌 왔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이 들기도 해요. 바람이 있다면 환자들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 수준도 높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해주고 싶습니다. 더 바람이 있다면 육체적인 치료는 물론 영적인 치료까지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요셉의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원은 단순한 진료행위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을 나누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느끼게 합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사랑은 나누면 곱절로 더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봉사하는 그 행위와 수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가난한 아시아 지역에 진료를 펼치기를 소망하던 선우경식 원장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영등포의 요셉의원>에 뒤이어 2013년 1월 26일 필리핀 마닐라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말라본시에 ‘필리핀 요셉의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시대의 요청에 더욱 체계적으로 잘 응답하기 위해 ‘요셉나눔재단법인’이 발족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의원은 ‘꼭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집’이 되려고 선우경식 선생님이 떠나간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청진기’라는 의미를 담은 요셉의원의 심벌마크에서 드러나는 그 정신이 언제, 어디서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요셉의원> 및 <필리핀 요셉의원>과 함께해 주신 수많은 의료 봉사자들과 일반 봉사자,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완식(루카) 의무원장과 요셉나눔재단법인을 맡으신 홍근표(바오로) 신부님을 포함한 실무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선우경식(요셉) 원장 선생님의 삶을 기리며 우리 모두 ‘섬김의 사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진 선우경식 원장님의 삶의 씨앗이 이제 우리들의 나눔과 봉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선우경식 원장님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





2022. 10~12 NEWS

요셉나눔재단법인 이사회, 내년도 사업계획 승인

요셉나눔재단법인 이사회가 11월 22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 청 3층 회의실에서 유경춘 이사장 주교와 홍근표 상임이사 신부, 신완식 이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3년도 요셉나눔재단법인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승인하고, 신임 이사 네 명을 선임했다.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사진은 법인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실무진의 설명을 듣고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이와 함께

인의 현안인 지역 재개발 문제와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분원 설치 계획을 설명했다.

고영초 건국대 신경외과 교수와 김의석 노무법인 사람 대표, 설현천 법무법인 명정 변호사, 박찬순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장 등 네 명을 법인 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홍근표 상임이사는 법

가톨릭대 성신교정 부제반 물품 후원

서울 가톨릭대 성신교정 부제반 담당 김철현·김경식 신부와 부제반대표가 11월 26일 본원을 찾아 마스크 두 상자와 옷 9상자, 신발 한 상자를 기탁했다. 이들 부제반은 지난해에도 본원에 적지 않은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오진우 부제반 대표는 “지난해 요셉의원

에 물품을 전달하면서 미처 보내지 못한 것과 함께, 이번에 부제반 30명이 성금을 모아 일부를 구입하고 일부는 모았다”며, “이제 학교를 떠나면서 연말연시에 한층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교구 새 사제, 첫 미사 봉헌하고 안수 베풀어

2018년 12월 말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본원에서 현장체험을 한 수원교구 서병주 루카, 김병수 비오, 권민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생이 지난 12월 14일 각각 사제와 부제가 돼 본원을 방문했다.

12월 9일 사제품을 받은 서병주·김병수 새 신부는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김태훈 마리오 부제와 함께 첫 미사를 봉헌하고 참석자들에게 안수를 베풀었다.

서병주 새 신부는 강론을 통해 “요셉의원에서 가난한 분들을 접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고 사제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

시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새 신부들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은 홍 사무총장 신부는 “요셉의원에서의 경험이 사제로서의 길에 좋은 방향타 역할을 했다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꼭 성인 신부님이 되시기를 빈다”는 덕담을 건넸다.



후원 물품을 전달한 서울 가톨릭대 성신교정 부제반 담당 김철현, 김경식 신부와 부제반 대표.



서병주, 김병수 새 신부가 현장체험을 나온 신학생 두 명에게 안수를 하는 모습.



석교상사, 사랑나눔 골프대회 모금액 후원



브리지스톤 골프용품 수입 총판업체인 석교상사가 제15회 사랑나눔 골프대회를 통해 모은 금액 가운데 9000만 원을 본원에 기부했다.

석교상사 측은 이번 사랑나눔 골프대회에 144명이 참가해 역대 행사 중 가장 많은 2억2,367만 원을 모금해 전액을 도움이 필

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1월 29일 본원을 찾아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신부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이민기 석교상사 회장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생각으로 20여 년간 꾸준히 행사를 진행해 온 결과, 대회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분들이 크게 늘었다”며, “추운 겨울 고생이 더욱 심한 가난한 이웃들에게 도와주신 분들의 따스한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성탄 나눔 실시

성탄을 앞둔 12월 22일 오후 요셉의원 전 직원 30명은 영등포역 부근 쪽방촌을 돌며 성탄 나눔을 실시했다. 본원에서 마련한 이번 성탄 선물은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두유와 반숙 계란을 준비했다. 직원들은 구역별로 6개조로 나눠 각 세대를 방문해 거주자의 안부를 살피고 선물을 전달했다.

본원 민광한 사회사업실장 수녀는 “이곳 쪽방촌 사람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많이 움츠러든 모습”이라며, “매달 방문 나눔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탄 나눔에는 좀 더 따스한 정성을 담아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



‘음악치료와 영화포럼, 참여자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본원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인 음악치료와 영화포럼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2년 여의 ‘장기 방학’을 끝내고 지난 11월부터 재개됐다. 코로나 이전 음악치료 교실 참여자는 20여 명에 달했으나, 12월 중순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 참여 인원을 10명 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수진은 김군자 교수를 비롯해 윤정인, 이성애, 이병진희 선생 등 네 명. 진행 과정은 전과 같이 클래식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음악 감상과 감상 후 이야기 나누기, 노래 부르기, 음악에 맞춰 리듬악기 다루기 등으로 구성된다.

윤정인 선생은 “참여자들의 태도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며,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야기 시간에 진지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곡을 쓰고 싶다가가 피아노 코드를 배우고 싶다는 분도 생겼다”고 말했다. 현재 참여자들은 7, 8명이나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진행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화포럼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진행 방식을 다소 변화시킬 예정이다. 제주에서 올라와 영화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이정규 교수는 “먼저 코로나를 잘 견뎌낸 참석자분들을 지지해 드리고 자존감 회복에 마음을 쓰고자 한다”며, “종전의 피정식 진행 방식은 진행자와 참석자들 모두에게 노력이 필요한데, 변화된 환경에서는 무리한 작업이 될 것 같아 영화 감상 방식으로 바뀌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제목(영화포럼)도 논의를 거쳐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쪽방촌 향기

‘요셉의원 봉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제는 하루하루 요셉의원에서 진료하며 요셉의원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제 치료에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치료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환자분들과,

제게 베풀 기회를 주신 요셉의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도성

본원 치과 봉사의

저는 요셉의원 봉사자 중 가장 요셉의원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도 아닌데다 살면서 봉사를 해 본 경험이라고는 대학 시절 장학금 신청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 의료센터에서 2시간 봉사를 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아직 27살의 나이로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보다 경험도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은 치과의사입니다. 이런 이유로 칼럼 작성 요청을 받았을 때 약간의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곳에서 느꼈던 보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글로나마 간접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마저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현재 군 복무(사회복무요원) 중인 저는 4개월 전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요셉의원에 대해 알고 의료봉사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6년 동안 성실히 치과대학에서 치의학을 공부 후 1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으로 일을 하며 깨우친 의료지식을 허투루 방치하고 싶지 않았고, 주변 동기들이나 선배들처럼 저도 ‘내 환자’를 위한 ‘주치의’가 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요셉의원에 처음 찾아오게 된 것은 저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었기에 그리 선하지도, 송고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진료를 하러 요셉의원 치과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치과 진료의자가 4대나 되고, 파노라마와 치근단 엑스레이 촬영 장비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여건이 너무 잘 구축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료 면에서

도 환자분들 또한 진료 협조도가 매우 높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환자분은 치아가 많이 상실돼 치아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저작(씹는 일)이 힘든 것은 물론 가만히 있을 때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치주염으로 불가피하게 뽑아야 할 치아들을 포함해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치아까지 (저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발치가 불필요한 치아까지) 모두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환자분을 설득해 필요한 치아만 발치한 후 틀니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고, 현재 그분의 치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쳐 멀쩡한 치아까지 뽑기를 원하시는 환자분을 보며 ‘진료비가 없는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입니다’라는 선우 경식 선생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요셉의원에 와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자들을 위하는 선우 경식 선생님의 깊은 생각과 의료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

저는 요셉의원 봉사자 중 가장 요셉의원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요셉의원에서 진료하며 요셉의원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제 치료에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치료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환자분들과, 제게 베풀 기회를 주신 요셉의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싶습니다. +



봉사자 코너

대학생 치과 봉사자 **이재형** 씨

“봉사요? 들인 시간보다 더 귀중한 걸 얻어가죠”



지난 2월부터 본원 치과에서 일반 봉사자로 일하는 이재형 씨(25·연세대 경제학부 4학년)는 고교 시절부터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봉사 예찬론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봉사 활동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 윈-윈(win-win)하는 양방향 소통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실제 요셉의원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유튜브에 소개된 본원 동영상을 보고 봉사를 자원했다. 외부 후원금과 봉사자들로 운영되는 무료 병원에 자신도 참여해 조금이나마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처음에는 매주 월요일 낮 1시부터 5시까지 치과 일을 돕다 7월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진료(19시~21시) 봉사자로 바뀌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하고 있다.

이 씨가 본원 치과에서 하는 일은 먼저 진료 준비로, 진료 기구를 세팅하고 소독한다. 이어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으면 의사에게 필요한 기구들을 전해준다. 내원한 환자 안내와 전화 문의를 받는 것도 그의 몫. 진료가 끝나면 환자들이 틀니를 장착하거나 발치를 한 뒤에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종종 외국인 환자들에게 영어로 안내를 하기도 한다.

환자들이 한하게 웃는 모습 보며 보람 느껴

이 씨는 본원에서 봉사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다고 전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는 의료진도 아닌 입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는 “자원봉사실장님이 ‘요셉의원에서는 모두가 전인 치료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며, “나중에 보니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이 질병 이외의 외로움이랄까 다른 사회적 결핍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것이 또 다른 치료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많은 내원 환자들이 연령상 아버지나 어머니가 빨리기 때문에 무슨 설명을 드려야 할 때는 자세를 최대한 낮춰 상냥하게 말씀드리면 들어올 때 얼굴이 굳으셨던 분들도 웃음을 지으면서 환한 모습을 보이시죠. 그럴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고교 1학년 때 거주지인 양천구 봉사센터의 공고를 보고 지체장애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 일을 시작했다. 그때 소외 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를 지도하는 일도 병행했다. 고교 3학년 때는 수능을 앞두고도 계속 봉사를 나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리 봉사가 좋아도 필요할 때는 쉬기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대학에 입학해서는 봉사 동아리 두 곳에 가입했다. 그는 “1학년 때는 YRC라는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3학년 때는 ‘서울동행’이라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된 ‘연세동행’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연세동행에서는 지금도 활동을 계속해 지난 11월 둘째 주에는 봉사자 20여 명이 소외계층 어린이 20여 명을 데리고 청와대 관람을 다녀왔다.

고교 때 봉사활동을 시작한 터라 봉사시간도 꽤 많은 편.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씨가 50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넘겼다고 봉사상도 수여했다.

“뭐 상을 받은 것보다는 일찍부터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남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가를 생각하고 노력해 온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봉사는 제 삶의 버팀목이 됐죠”

이 씨는 본원에서 봉사하며 생각지 않게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도 생겼다고 전했다. 치과에서는 틀니를 닦을 때 치약을 쓰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다. 그런데도 치약으로 틀니를 세척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반면 환자들 중에는 온라인 등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실천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봉사자는 환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상냥하게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 점에 착안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보건산업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온라인으로 올바른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을 몇 개 제안해 얼마 전 운 좋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봉사를 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물리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건 사실이지만, 대신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다.

“병원 일을 마치고 서둘러 달려오

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고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봉사를 다녀오면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힐링이 돼서 이제는 봉사가 삶의 한 버팀목이 됐다고 할까요.”

이 씨는 봉사야말로 내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현재 대학 4학년이라서 공부나 취업 등을 위해 준비할 것이 제법 많지만 봉사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활동을 하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는 계속 이어나가리라 확신합니다.” +

환자스토리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박정준 씨

“몸 잘 추슬러서 요양보호사 일 계속해야죠”



20년 전 혈압 때문에 처음 본원을 찾은 뒤 5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당뇨약을 처방받고 있는 박정준 씨(가명·60)는 “요셉의원에서 꾸준히 진료받으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어서 형님도 당뇨로 사망했어요. 심할 때는 혈당 수치가 500~60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요셉의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고 수시로 혈당 점검을 받아 지금은 200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마포구 망원동 LH공사 임대 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박 씨는 지방 대학에 다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복학을 안 하고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다. 첫 직장은 친척이 운영하던 서울 정릉 유원지의 한식집. 그는 이곳에서 한정식 조리를 배운 뒤 10여 년 동안 한식 조리사로 일했다.



“30대 중반에는 중규모 한정식집의 조리장까지 했었죠. 그런데 IMF 환란으로 요식업에 불황이 닥쳐 직원들이 반으로 줄어 들고 월급도 깎이면서 조리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 뒤 그는 인테리어 공사장을 따라다니며 자재 운반이나 청소 등 막노동을 했다. 그러나 이런 공사는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두 달씩 쉬게 되고, 쉬는 동안 친구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게 됐다.

“술을 좀 많이 먹다 보니 생활 의지가 흐트러지고 일도 펄크내 신용이 떨어지면서 40대 중반부터는 일하라는 연락도 안 오더군요. 아내가 있었으면 돈 관리나 건강 관리에서 도움도 받았을 텐데, 조리 일 그만두고 생활고가 이어지자 8년 동안 함께 살던 여성도 떠났습니다.”

이즈음 그는 몸도 약해져 영등포 생활 쉼터로 들어가 3년 정도 지내다 친지의 소개로 가평 꽃동네로 들어갔다.

꽃동네에서는 박 씨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도록 주선해 자격을 취득한 뒤 꽃동네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적으나마 월급도 받을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활의지도 생겨 꽃동네를 나와 잠시 사설 요양원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문제 등 몇 가지 맞지 않는 일이 있어 그만두고 용산 쪽방촌으로 갔다가 당뇨합병증이 생겨 요셉의원을 찾게 되었지요.”

병이 심해지자 그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 월 58만 원 정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커피와 술을 줄이고 걷기 등 꾸준히 운동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한다”는 그는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정성껏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

후원의 손길



부친 유언 따라 후원금 쾌척한 김건열·이은정 씨 부부

“하느님께 기쁨 드리는 한결같은 병원 되기를”



'사후 1억 원을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긴 고 이선용 박사(사진 오른쪽)와 가족들 사진.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1억 원을 하느님께 기부하라는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가장 적합한 곳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요셉의원에 지원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11월 4일 본원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김건열·이은정 후원자 부부는 올해 9월 초 작고한 부친 고 이선용 박사

(86·가정의학과)가 “평소 시간을 쪼개 외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점을 감안해 무료 진료를 포함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요셉의원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대를 나온 고 이선용 박사는 인천에서 개원한 뒤 20여 년 동안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다 이후 요양병원 원장으로 봉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로 교회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는 것.

“아버님이 1억 원을 말씀하셔서 동생들도 내년에 5000만 원 기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그분의 영광을 위하고,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니까요.”



이은정 후원자는 요셉의원이 설립 당시부터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출범해 의미가 있

는데다 천주교 산하 기관이라서 후원금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님의 소망을 이뤄드리는 기회에 저희도 천주교 교

리를 배워 남편과 함께 영세를 받을 계획입니다.”

부부는 이번 후원을 하면서 “요셉의원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한결같은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원 홈페이지 통해 1000만원 기탁한 김경미 씨

“가난한 환자들에게 따스한 마음 전합니다”

겨울 한파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11월 말,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약하나마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1000만 원을 쾌척한 김경미 씨(가명).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것을 혼자 쓰지 말고 여기저기 좀 나눠보자는 생각을 하다가 요셉의원이 떠올라 흔쾌히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지내기가 더 힘든 가난한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찍부터 나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해온 김 후원자는 현재 한두 군데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기부 문화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탓인지 기부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보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내잖아요. 그런데 비록 액수는 크지 않지만 성금을 내고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대부분 모르지요. 이른바 피드백 이랄까, 기부금이 불우이웃들에게 제대로 잘 돌아갔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원자는 그래서 기부자들이 직접 후원할 곳을 골라 전해주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눔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저희 집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가난한 이들이 동냥을 하러 오면 절대 빈 손으로 안 보내고 뭐라도 쥐어드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 자신 나이가 들면서 죽을 때 재물을 남기고 간다는 게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있을 때 꾸준히 나누며 살고 싶어요.”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 후원자는 주변의 지인들이 본원에 봉사를 나가기도 해서 일찍부터 본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원자는 “이번에 요셉의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후원이든 봉사든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2년 10~11월)

● Hyang Miles ● 강민주 ● 강소임 ● 강태동 ● 고병우 ● 고은서 ● 광영순 ● 광용구 ● 구주연 ● 권은유 ● 권준정 ● 금 성 ● 김건열 ● 김경주 ● 김경태 ● 김경희 ● 김기철 ● 김나형 ● 김도아 ● 김만구 ● 김미경 ● 김미애 ● 김미영 ● 김미화 ● 김민희 ● 김범석 ● 김석척 ● 김선아 ● 김성아 ● 김성호 ● 김소윤 ● 김수경 ● 김애순 ● 김영종 ● 김예완 ● 김예주 ● 김옥립 ● 김용상 ● 김유라 ● 김유생 ● 김윤희 ● 김은경 ● 김은영 ● 김일영 ● 김일환 ● 김재숙 ● 김재정 ● 김점옥 ● 김정경 ● 김정권 ● 김정식 ● 김정자 ● 김종남 ● 김종숙 ● 김주영 ● 김주은 ● 김주호 ● 김지아 ● 김지현 ● 김진화 ● 김창연 ● 김태경 ● 김태완 ● 김태윤 ● 김태희 ● 김현경 ● 김현우 ● 김현정 ● 김호순 ● 김홍주 ● 김희경 ● 김희정 ● 나 인 ● 남문기 ● 남현정 ● 노대민 ● 노주환 ● 류재은 ● 명 솔 ● 문선하 ● 문주현 ● 문혜영 ● 민설아 ● 박가윤 ● 박경순 ● 박규미 ● 박규희 ● 박민아 ● 박서령 ● 박선미 ● 박수연 ● 박수정 ● 박신영 ● 박윤옥 ● 박은별 ● 박은정 ● 박은주 ● 박일성 ● 박재관 ● 박재복 ● 박지민 ● 박하윤 ● 박현옥 ● 방인혜 ● 배수경 ● 배오도 ● 백경희 ● 백권섭 ● 백원선 ● 백종현 ● 변호정 ● 서상철 ● 서세진 ● 서해리 ● 서희정 ● 소안희 ● 손선숙 ● 손수진 ● 손은숙 ● 손혜민 ● 송민경 ● 송용성 ● 송인옥 ● 송지수 ● 스 전 ● 신수빈 ● 신순철(홍성문화) ● 심시은 ● 안벼리 ● 안성환 ● 안소영 ● 안영웅 ● 안혜준 ● 양대희 ● 양유진 ● 양주연 ● 엄정애 ● 여경옥 ● 오가인 ● 오범석 ● 조은정 ● 오유정 ● 오유진 ● 오은영 ● 오혜정 ● 원창희 ● 유명상 ● 유병진 ● 유예지 ● 유유순 ● 유정아 ● 유하영 ● 육지연 ● 윤연석 ● 윤은정 ● 윤재열 ● 윤지윤 ● 율리안나 ● 요셉 ● 이강문 ● 이경민 ● 이기주 ● 이대영 ● 이도영 ● 이명자 ● 이미자 ● 이민승 ● 이병국 ● 이상욱 ● 이석동 ● 이선영 ● 이성민 ● 이성윤 ● 이수진 ● 이옥희 ● 이유진 ● 이윤정 ● 이은솔 ● 이재민 ● 이재승 ● 이재현 ● 이재호 ● 이 정 ● 이정봉 ● 이정주 ● 이정준 ● 이정현 ● 이지선 ● 이지은 ● 이지현 ● 이지희 ● 이진희 ● 이채은 ● 이현아 ● 이현정 ● 이형동 ● 이혜리 ● 이혜빈 ● 이혜용 ● 이희나 ● 인혜은 ● 일본교포 ● 임명연 ● 임소미 ● 임승재 ● 장수자 ● 장승민





● 장진영 ● 전경관 ● 전우현 ● 전지웅 ● 정락수 ● 정빛나 ● 정성곤 ● 정신호
● 정유진 ● 정재현 ● 정호림 ● 정희원 ● 정희진 ● 제주교구신학생회
● 조우경 ● 조윤정 ● 조재희 ● 조해웅 ● 조희제 ● 주선옥 ● 지혜진 ● 진경환
● 채희백 ● 초천재 ● 최보연 ● 최수정 ● 최영선 ● 최용분 ● 최유진 ● 최은동
● 최은미 ● 최재원 ● 최정인 ● 최지은 ● 최진아 ● 최화자 ● 최희진 ● 한상민
● 한서진 ● 한승민 ● 한시윤 ● 한아현 ● 한창리 ● 한호중 ● 허수민 ● 허중철
● 현경찬 ● 현서정 ● 현정아 ● 홍명희 ● 홍성숙 ● 홍해인 ● 황동길 ● 황보정
● 황용진 ● 황재윤 ● 황정희 ● 황청정

+ 후원금을 처음 보내신 단체(2022년 10~11월)



● (주)비바리퍼블리카 ● (주)에스케이아이엔지 ● 그라비타스 ● 생명에너지주식
회사 ● 소공동독배기 ● 스마일약국 ● 치예원주식회사 ● 평화조각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2022년 10~11월)



● AA 봉사자 : 샤인머스켓 포도 2상자 ● 강신걸 · 김선화 : 롤케익 54개
● 김금성 : 감 7상자 ● 김영숙 : 쌀 20kg, 스팸 1상자 ● 김용민 봉사자 : 사과
1상자 ● 문제용 · 문서용 : 굴 1상자 ● 송채문 : 떡 2상자 ● 아웃리치 후원자
: 두유 3상자 ● 양재영 : 쌀 20kg ● 영등포동4가 우체국장 : 드립커피 2상자
● 익명 : 쌀 140kg, 라면 6상자 ●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 쌀 20kg ● 자연드림
: 생수 48상자, 소금 6kg ● 전영화(안나) : 고구마 3상자 ● (주)렉시안 : 두유
2상자 ● (주)바리의꿈 : 두유 5상자 ● (주)천상의커피 : 커피 1상자 ● 채경숙
소피아 : 감귤 5상자 ● 토마스의집 : 떡 1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2년 10~11월)



● 공 * 희(대전) : 옷 1상자 ● 김 * 연(군포시) : 옷 1상자 ● 김기 * : 옷 1상자
● 김선화 : 옷 2상자 ● 가톨릭대 성신교정 부제반 김철현 · 김경식 신부와
반원들 : 마스크(2상자), 옷(9상자), 신발(1상자) ● 김 * 성(부산) : 신발 3켤레
● 미라콤파이낸씨 : 옷 3상자, 커피믹스 2상자 ● 박 * 설(부산시) : 옷 1상자 ● 서
* 주(강남구) : 옷 등 4상자 ● 안순용 베드로 : 옷 1상자 ● 오세민 : 옷 2상자,
가습기 1대 ● 오승현 : 옷 1상자 ● 이수정 : 옷 1상자 ● 이종익 : 옷 1상자 ● 익명 :
옷 10상자 ● 정** : 옷 1상자 ● 정준* : 옷 1상자 ● 조 * 구 : 옷 1상자 ● 한은영(안나) : 옷 1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2년 10~11월)



● 배강보 : 뉴히알유니 외 14종 ● 익명 : 마이썬325, 광동쌍화탕 4상자 ● 최진희 : 리박트과립 외 4종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정 외 15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2년 10~11월)



● 목4동성당 : 덴탈마스크 3000매 ● 박경인 안젤라 : 볼펜, 메모지 세트 1상자 ● 서정원 : 94마스크 55매, 80키드마스크 115매, 체온계 5
개, 손소독제 4개 ● 영등포동4가 우체국 금융영업과 : 치약칫솔세트 48개, 위생백 50개, 세제세트 20개, 롤백 40개 ● 정미화 : 덴탈마스
크 200장, 80마스크 100장, 면마스크 16장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김경원(치과)
김하연(신경정신과)
이지현(한외과)
박정현(치과)
정학순(정형외과)
황인하(신경과)

● 약사 : 최귀분

● 일반봉사 : 김다해 · 김수빈 · 김지현
유지원 · 이소미 · 이향연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문태식
● 서울시립영성보호센터
● 천주섭리 나눔의 집
● 토마스의 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2년 10월	1,179 명
2022년 11월	1,362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2년 11월 말 현재)

728,256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 10~11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김다솔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주민들, 3년 만에 재개된 의료봉사에 감사

현지 복지재단 후원으로 마닐라 중앙대도 대규모 의료 봉사



코로나 이후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준 이번 첫 번째 의료봉사에서는 특히 주민들이 그동안 진료가 어려웠던 치과 진료를 크게 반겼다.

지난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 봉사 활동이 있었다. 10월 말에는 한국에서 박상우 원장(김포 더맑은치과)과 치위생사 서빛나 선생이 방문해 10월 29~30일 이틀간 1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또한 통역을 위해 마닐라에 거주하는 문정희(실비아) 자매가 찾아와 환자와의 소통에 힘을 보탰다. 이번 의료 봉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봉사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셉의원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준 첫 번째 의료봉사였다. 특히 입안을 치료하는 치과 특성

상 코로나로 인해 진료가 어렵다보니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치과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치과 진료봉사를 크게 반겼다.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돌아가면서 의료진에게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다.

한국 치과 진료 봉사에 이어 현지 의대에서도 의료 봉사를 나왔다. 요셉의원과 협진으로 주 3회씩 진료하고 있는 MCU(Manila Central University)에서는 지난 12월 3일 대규모 의료 봉사를 진행했다. 도네이트 필리핀스(Donate Philippines) 재단 후원으로 이뤄진 이 의료 봉사에서는 치과, 안과, 가정의학과, 내과, 약학과를 중심으로 약 150 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특히 재단에서는 가격이 비싸 이곳 사람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안경을 맞춰주고, 치아 건강을 위한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등의 의료 활동과 함께, 식료품도 준비해 방문한 환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김다솔 원장신부는 "10월, 12월 두 번의 의료 봉사는 요셉의원 진료의 완전 정상화를 의미한다"며, "2023년에는 더욱 많은 의료봉사팀이 방문해 이 지역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과 진료실 장면.



서울 양천성당 · 여의도성당, 성탄 선물 등 보내와



지난 10월 22일 서울 양천 성당 지하주차장에서 열린 요셉의원 돌기 바자회 모습. 아래 오른쪽 사진은 여의도 성당에서 보내온 학용품과 생필품들.

지난 10월 서울 양천성당에서는 필리핀 요셉의원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주일학교 초등부 자모회에서 주관한 이 바자회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 풍성한 행사로 치러졌다. 10월 22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열린 바자회 수익금은 필리핀 요셉의원으로 전달돼 장학생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양천 성당에서는 바자회 수익금 외에 어린이들이 쓸 학용품도 보내주었다. 가정에서 쓰지 않는 깨끗한 학용품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양말도 곁들여 전달했다.

이와 함께 서울 여의도 성당에서도 성탄을 앞두고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과 문구류, 장난감 등을 마련해 필리핀으로 보내왔다. 필리핀에서는 질 좋은 노트나 펜, 연필 같은 학용품을 구하기가 어려운데도 학교에서는 학용품을 준비물로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때문에 이곳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가기 위해, 또 각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학용품이 필요하지만 그 수나 질이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양천성당과 여의도 성당에서 보내온 후원품은 이곳 어린이들에게 그야말로 반가운 성탄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대기실 새 지붕 완공, 진료에도 활용돼

요셉의원은 늘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대기할만한 공간이 부족해 그동안 주차장에 천막을 쳐서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왔었다. 그러다 얼마 전 한국 가톨릭경제협회를 통해 지원받은 후원금으로 새로운 대기실 지붕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새 지붕이 만들어짐에 따라 종전의 천막보다 한결 쾌적해진 공간에서 환자들이 해와 비를 피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지붕에 철제 빔을 받쳐 새로 단장한 환자 대기실.



복음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느새 성탄이 지나고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일견 당연한 듯 보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묵상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신앙은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영원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겪었습

니다. 이곳 필리핀에서 요셉 의원이 하는 일이 다양하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진료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 대학병원에서의사를 파견해 오기도 하고, 이곳 NGO를 통해 쌀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장학 사업도 활기를 띠어 현재는 60여 명의 장학생들이 학업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의 어려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새 지붕을 짓기 위해 알아본 중 가격 덤터기를 쓸 뻔한 일, 치료받던 환자가 치료 중에 선종하자 유가족들이 찾아와 오히려 장례비를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살지도 않는 집 앞에서 있다가 제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를 붙잡고는 집을 지어달라고 떼를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마 이곳에 다 쓰기 어려운 속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이런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면 마치 요셉의원의 좋은 일이 이런 사건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



필리핀요셉의원 장학생들이 성가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시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에 의해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수난에 대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작은 어려움은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의 거대한 운명 앞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이 곧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으로 향했듯이,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어려움을 거쳐 더욱 영원하고 진리이신 그분께로 나아가리라고 믿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해 봅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 2022년 10월~11월 신규 후원회원(14명)

- 김병재 ● 김승애 ● 김희신 ● 박진한 ● 배신희
- 서빛나 ● 이계희 ● 이재협 ● 조우준 ● 조인기 ● 최수빈
- 하명순 ● 익명(특별감사헌금 외 1명)

+ 2022년 10월~11월 신규 후원단체

- 양천성당 자모회

+ 2022년 10월~11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977명 ● 급식 9,749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2년 11월 현재)

- 진료 89,362명 ● 급식 453,099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2. 10~11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차드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은감바이’어(차드의 다수부족어) 성경 5,000권 인쇄 지원 예정



차드로 보낼 은감바이어 성경 축복식 장면. 가운데는 구요비 주교, 오른쪽은 이문주 당시 국성회 지도신부, 왼쪽은 당시 가톨릭출판사 김대영 사장신부.

난한 현지 신자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해왔지만, 번역을 완성하고 출판할 여력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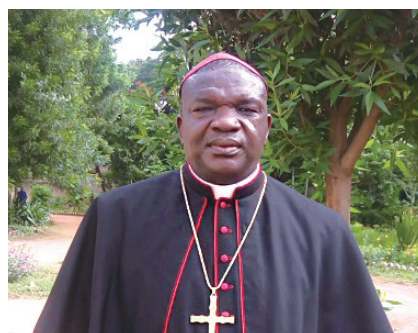
구 주교의 제안을 받은 국성회는 2018년 10월부터 도바 교구 및 성경 인쇄를 담당할 가톨릭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은감바이어 성경 제작을 진행했다. 차드의 열악한 통신 인프라로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2019년 12월 17일 마침내 경기 파주 바이블코리아에서 구요비 주교 주례로 ‘아프리카 차드 은감바이어 성경 기증 축복식’을 열었다.

국성회에서는 아프리카 차드 도바 교구에 지난 2018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성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인연은 201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 3~15일 바티칸 교황청은 세계 각지에서 2년 이내에 서품된 주교를 대상으로 신임 주교 연수를 실시했다. 한국에서는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제주교구 부교구장 문창우 주교, 서울대교구 구요비 주교가 참석했다.

신임주교 연수 기간 동안, 구요비 주교는 차드 도바 교구장인 마르탱 와잉우에 바니 주교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 마르탱 주교는 도바 교구의 주요 부족어인 ‘은감바이’어 성경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를 설명했고, 구요비 주교의 소개로 국성회에 ‘은감바이’어 신구약 성경 3,000권 후원을 요청했다. 차드는 오랜 내전을 겪고, 많은 이들, 특히 어린 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라다. 도바 교구는 가

참석자들은 축복식에서 차드 도바 교구로 전달될 은감바이어 성경 3,000권 외에 성물과 성화 89,000개, 의류 등의 후원물품이 안전하게 운송되기를 기도했다. 성물과 성화는 가톨릭출판사가, 의류는 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와 요셉의원이 함께 마련했다. 이날 축복식에는 구 주교



차드 도바 교구장 마르탱 와잉우에 바니 주교.

와 이문주 신부, 당시 가톨릭출판사 사장 김대영 신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가정 당 성경 한 권씩 보급 예정

1차로 지원받은 은감바이어 성경에 대한 현지의 기대와 관심은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성회에서 후원한 성경 3,000권은 2022년 초 거의 다 소진돼 약 200부가 남



인쇄된 은감바이어 성경.

았다는 연락이 왔다. 도바 교구는 성경을 추가로 5,000권 더 보급해 은감바이어를 사용하는 한 가정당 성경 한 권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성회에 은감바이어 성경 5,000권 2차 인쇄를 요청해 왔다. 국성회는 이 요청을 검토한 뒤 현재 도바 교구, 가톨릭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성경 인쇄 제작을 진행 중이다. +

☞ 차드 은감바이어 성경 5,000권 인쇄 제본 및 배송 시기는 2023년 초로 예정하고 있다.

차드에 대한 기본 정보

Republic of Chad



- 종교 : 이슬람교(51.8%), 개신교(23.5%), 가톨릭(20.3%), 기타(4.4%)
- 아랍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지만 별개로 여러 부족어가 사용되고 있다.
- 8세기 초부터 카뎀 제국이 들어섰고 14세기에는 보르누 제국, 와다이 왕국 등 몇몇 왕국이 세워졌으나, 19세기 말 수단의 노예상이자 군벌이었던 라비흐 앗 주바이르가 정권을 잡았다가 1900년부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
- 1960년 8월 아프리카의 해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 초대 대통령이 심한 독재정치로 많은 반발을 샀고, 기독교계 남부 흑인 주민과 무슬림계 북부 비흑인 주민 간에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립이 악명 높은 차드 내전으로 이어져 최근까지 지속되었다.
- 현재는 휴전 협정을 맺고 내전은 일시적으로 멈추었으나, 그 후유증과 함께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열악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국민들의 빈곤은 더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불어 성경 지원에 대한 카메룬 바피아 주교 감사 편지

“성경 구입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홍근표 바오로 신부님께

국성회에서 성경 구입을 후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회에서는 바피아 교구민들을 위한 성경 지원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고, 이어 구입 대금 1,560만 원(7,500,000 XAF)을 보내주셔서 지난 8월 31일 야가다 수녀님을 통해 교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수령 사실을 확인드립니다.

저희는 이 지원금으로 내년 1월 초까지 성경을 구입할 예정이며, 교리 교사와 교구민 가정, 새로 확인된 빈곤층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특별 캠페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부님과 모든 후원자님들께 교구 전체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특별 캠페인 프로그램의 모든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 최종 보고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마누엘 다시 유팡 주교



카메룬 바프삼 교구 주일학교 방학식(왼쪽)과 교리 교육 장면.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2022년 10월~11월)

● 고현수 ● 김금재 ● 김명숙 ● 김명희 ● 김범준 ● 김병희 ● 김선자 ● 김성권 ● 김영환 ● 김윤순 ● 김은애 ● 김진우 ● 김춘희
● 김태남 ● 김현경 ● 김현숙 ● 문경호 ● 민영진 ● 박소향 ● 박언빈 ● 박은숙 ● 박종대 ● 박찬순 ● 송미경 ● 송보영 ● 신해경
● 양영실 ● 오세형 ● 오영신 ● 윤순자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종구 ● 윤창현 ● 이강득 ● 이미순 ● 이상현 ● 이용애 ● 이은행
● 이장순 ● 이재청 ● 이정석 ● 이정희 ● 이종대 ● 이지현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현규 ● 이혜순 ● 임한미 ● 장을숙 ● 전대영
● 조용덕 ● 조하영 ● 조현순 ● 진석실업 ● 최두혁 ● 최명옥 ● 최송원 ● 최원남 ● 하금태 ● 허 군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2022년 10월~11월)

● 김경식 ● 김원호 ● 나종진 ● 박우준 ● 박준병 ● 백성호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최광희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익명희망자

+ 신규 후원회원 - 일반(2022년 10월~11월)

● 박봉희 ● 박혜숙 ● 서소녀 ● 우성현 ● 이상숙
● 이중환 ● 정재숙 ● 주은영 ● 황태운 ● 홍덕희

■ 2022년 10월~11월 후원금 내역 : 9,516,000원

+ 국성회 후원 방법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국민은행	364301-04-106412	(재)천주교서울대교구

2023년 2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카메룬에 대한 기본 정보



- 종교 : 가톨릭(40%), 개신교(30%), 이슬람교(18%), 기타(6%), 무교(6%)
- 19세기 후반에 독일 식민지로 개척되었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전 후 영국과 프랑스에 각각 양도되었으며, 1960년에 독립했다.
- 권위주의 독재자로 알려진 폴 비야가 198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되어 있는 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이자 이슬람계 사이비 종교인 보코 하람이 카메룬 북부로 넘어와 비무슬림 및 카메룬 국민들에 대한 테러와 학살 등을 벌이다가 2018년 카메룬군에게 격퇴당했다.
- 영어, 프랑스어가 공용어지만 영어 사용자가 20%며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쿠데타와 내전이 없었으나 최근 영어권 지역인 암바조니아에서 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 마태 18,19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 의존증 환자,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5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배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월~금요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영화포럼

시간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아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